



## 高性能 製品의 量産体制 確立

李凡千 / (株) 큐닉스 社長

대부분의 컴퓨터 기업들은 1985년은 어려움을 피부로 겪은 한해였다고 말하고 있다. 國際적으로 볼 때 세계의 컴퓨터 산업을 끌어가고 있는 美國의 市場이 주춤해진 이후 産業에 그 여파가 물려왔던 것이 지난 1985년이었으며 國內의 상황 역시 輸出의 不振과 사용자들의 購買力 약화가 겹쳐진 한해였다.

우리 회사는 지난 3년동안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國內의 어떤 컴퓨터 기업보다도 건실한 발전을 지속하여 왔다. 1985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國內의 여건을 예견하여 企業의 擴張보다는 內實을 기하는 經營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대단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尖端産業의 중요성은 R&D 한 곳에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큐닉스와 같은 고도 엔지니어링 중심의 기업은 자칫 잘못하면 개발 그 자체가 기업의 모든 것이라는 아집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기업은 技術力이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난 해에는 技術外的 분야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엔지니어가 있어도 좋은 제품을 적기에 設計하여 생산, 판매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1985년은 研究管理制度的 확립, 마케팅 / 서비스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조직의 강화가 R&D와 조화를 이루게 한 한해로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시장이 불투명할수록 R&D 投資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지난 해에는 우리 회사가 어느 해보다도 R & D 投資를 많이 하였다.

모든 개발 요원에게는 1대 이상의 터미널 또는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이 주어졌으며 Library가 정립되어 필요한 技術資料를 항상 찾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製品開發의 방법도 단기적 처방이 아니

라 中長期計劃을 수립하여 여유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CAD System의 도입이라든가 사내의 각종 컴퓨터의 Network화, Documentation의 自動化는 R&D의 효율을 배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6년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많기에 우리에게 는 기대에 부응 해이다. 1년반 동안의 작고 끝에 완성한 Laser Beam Printer가 지난 연말부터 급속한 伸張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많은 成長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용 설비가 금년 상반기 중 끝날 예정이므로 하반기부터의 수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퍼스널 컴퓨터의 붐이 금년부터 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동안 고성능 프린터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한 우리로서는 새롭게 개발된 QP5550, PC24 등의 모델로서 시장의 점유율은 한 층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IBM의 國內 Share가 증대함에 따라 add-on市場 역시 크게 伸張될 것으로 보이며 Host용으로 HQ 3278 터미널과 QP3287 프린터의 매출 伸張이 예상된다. 또한 IBM PC용 또는 호환기를 위한 add-on Hardware/Software도 호환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당사의 14인치 모니터와 Graphics Card는 內需는 물론 輸出市場을 겨냥해서 설계된 제품이며 중반에 발표된 QNIX LAN Series는 Workstation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명실공히 OA機器의 총 아로써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을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12월경 반월공단의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반월공단 입주전에는 구로공단으로 생산시설을 확장 이전하여 보다 폭넓은 QC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이미 부산사무소를 설치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支援体制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다 AS기능을 강화하고 使用者 教育을 완벽하게

支援함으로써 Buyer's Market로 전환되는 시장 여건에 대처하여 나갈 것이다.

당사가 갖고 있는 타 메이커와 다른 형태의 Business는 「엔지니어링 Support」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컴퓨터 관련 회사에 무형의 상품인 「엔지니어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엔지니어링 능력은 부족하지만 마케팅 또는 생산능력이 우수한 타 기업에 技術支援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輸出을 지원하며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각자의 專門化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휴닉스는 회사창립시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지원하여 왔던 것이다.

금년도에는 MS-DOS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Workstation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의 技術支援, 그리고 고성능 주변기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요구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년은 우리에게 가장 활기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組織이 整備되어 있고 개발이 완료되어 있으며 마케팅과 서비스의 질이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급 엔지니어링 제품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高價의 小量生産이라는 벽을 넘어서 高性能製品의 양산체제 확립과 低

價格化로 시장을 확대하여 갈 것이며 고객 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既確保된 시장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될 것이다.

엔지니어링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더욱 서비스의 level을 증대시켜서 간접적 수출 지원을 늘려갈 것이며 후반기부터 自社 商標에 의한 제품 수출로써 많은 사람에게 高附加價值 산업의 leader로 인식되는 휴닉스가 될 것이다.

R & D는 그동안 주력해 온 바와 같이 금년에도 매출의 20%선의 투자를 할 것이며 교육의 강화 계획으로써 2명의 박사과정교육을 비롯한 인력 투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간 組織, 人力, 資金, 市場 등의 모든 불안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평균 20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불안한 여건 대신 안정된 우리의 힘을 볼 수 있다. 엄청난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제2의 도약을 약속받은 1986년을 내다보고 있으며 지난 노력보다 몇배 더 큰 노력만이 우리를 반겨주는 미래에 대한 보답임을 겸손하게 이해하고 있다.



## 謹賀新年

希望에찬  
丙寅年 새해를  
맞이하어  
貴社의 日益 繁昌을  
祈願합니다.

韓國電子工業振興會 任職員 一同